

‘친일 역사관’ 논란… 사상 초유 광복절 기념식 파행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광주·전남지역 10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제7회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앞두고 광주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대일본 저자세 외교 중단 및 친일 역사 쿠데타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독립기념관장·한국학연구원장 등 ‘친일성향’ 뉴라이트계 임명 반발
항일단체연합회·야당 불참 선언
“민족 자주·독립정신 훼손 우려”

제79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가운데, 정부가 인선한 3대 역사기관장을 둘러싸고 친일 사대성향을 가진 ‘뉴라이트 논란’이 일면서 사상 초유의 ‘반쪽짜리 기념식’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광복회 등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장들은 “마녀사냥 인민재판”을 멈추라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김형석 대한민국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이 지난 8일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했다. 후보 심사에 참여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의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적하며 임명 중단

을 촉구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서 “대한민국 광복절이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라며 “진정한 광복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광복회와 2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회(항단연)는 즉각 반박문을 내고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 역사를 감추고 부정하는 곳인가”라며 “15일 기념식은 자체적으로 거행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도 지난 12일 같은 이유로 기념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일주의자에게 단 한 편의 국민 혈세도 지원할 수 없다”며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있나”고 비판했다.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꼽히는 광복절 행사에 독립유공자·야당 등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상 최초다. 이같은 전대미문 사태가 발생한 까닭은 정부가 독립기념관장 인선 이 전부터 역사·교육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꾸준히 기용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부정하고, 이승만 독재를 미화하며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단체를 뜻한다. 2005년 창립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대표적이다.

논란의 신호탄을 쏜 건 2022년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장이 임명되면서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기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에 참여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이 한창이던 2013년 국정원을 지지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비판을 받았다.

▶ 3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해양영토 순례 ‘2024 섬섬여수-거문도·백도를 가다!’

9월 10~11일… 광주·전남 시도민 참가자 모집

전남일보가 지난해 ‘올해의 섬-가거도를 가다’에 이어 ‘2024 섬섬여수-거문도·백도를 가다!’ 해양영토 순례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해양영토의 소중한 가치를 고취하기 위해 열립니다. 뜻깊은 해양영토 순례에 참여해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담고 싶은 시·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 사 명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
‘2024 섬섬여수-거문도·백도를 가다!’ 해양영토 순례
행사일시 2024. 9. 10.(화)~9. 11.(수) (1박2일)
장 소 여수시 및 거문도·백도 일원
모집 대상 거문도·백도 일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거나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60명
신청기간 2024. 8. 19(월)~8. 30.(금)까지
신청방법 전남일보 홈페이지(www.jnilbo.com)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결과발표 2024. 9. 2.(월) 심사 후 개별전화통보 및 전남일보 홈페이지 공고
문 의 062) 519-0730~1

주최·주관 전남대학교·전남일보
후 원 전라남도·여수시,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



광주産 ‘캐스퍼 전기차’, 국회 달린다

강 시장-우원식 의장, 구매 협약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EV)’이 대한민국 국회를 달린다.

광주시와 국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캐스퍼EV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만든 국회가 전기차

생산으로 제2 도약에 나선 GGM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캐스퍼EV 국회 1호차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회는 업무용 공용차량으로 캐스퍼EV를 구매해 사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국회가 캐스퍼EV 구매에 선도적으로 나서준 만큼 다른 공공기관 등에서도 업무용 차량으로 캐스퍼EV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복절... 15일자 신문 쉽니다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켄셀링 대표,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제심 전문 변호사	사회

만찬 후 강연 (18시 식사, 19시 강연)

全南日報

